

제5장 사천교육의 과제와 전망

제1절 사천교육의 과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주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어 사회에서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이에 사천교육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다. 이는 경남의 교육지표이자 사천의 교육지표로 사천교육공동체의 다짐이자 학생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현해 가고 있는 사천교육의 현재이다.⁹⁾ 이를 토대로 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천교육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사천교육의 정체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1. 사천교육의 지향점과 정책 방향

가. 사회 변화(제4차 산업혁명)와 사천교육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는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발전해갈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화 시대의 학교 제도는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보편교육의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산업화 시대로의 전환이 보편교육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인간 수명 연장 등의 사회 변화는 또다시 새로운 교육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기와 시스템이 사회 여러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이와는 차별되는 인간의 고등 사고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따라 교육도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서 실제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교육의 패러다임도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9) 경상남도교육청, 2022. *경남교육*(창원: 경상남도교육청, 2022), 10.

한다.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기대되는 바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사천교육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위해 교수학습의 변화와 다양화, 학교교육 체제의 변화, 개별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과 학습에 대한 본격적인 개편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¹⁰⁾

나. 지역 인구 감소와 사천교육

한국은 1984년에 합계출산율 1.76명으로 저출산 사회에 돌입한 이후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명으로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하였다. 2017년부터 노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인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학생 수의 측면에서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남의 학생 수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¹¹⁾ 사천은 2012년 출생아수 1,161명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462명이 출생하였다.¹²⁾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생아 수(명)	1,161	1,031	1,089	990	924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출생아 수(명)	741	616	531	523	462

저출산 고령사회는 학령기간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에서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습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종류나 성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변화에 따라 학교급에 맞는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¹³⁾

따라서 사천교육 또한 개인에게는 평생에 걸친 학습이 가능한 역량을 길러주는 동시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연계되는 통합적 평생교육 체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0) 경상남도교육청, 제7차 경남교육 발전 계획(창원: 경상남도교육청, 2018), 3-4.

11) 경상남도교육청, 제7차 경남교육 발전 계획(창원: 경상남도교육청, 2018), 4.

12) 통계청,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KOSIS 국가통계포털, 2022, <https://kosis.kr>.

13) 경상남도교육청, 제7차 경남교육 발전 계획(창원: 경상남도교육청, 2018), 5.

다. 지역 특성을 활용하는 사천교육

사천은 하늘과 바다의 도시이며 인구 20만 강소 도시를 만들어 나갈 한려수도 해상의 중심지다. 해양과 대륙성 기후가 혼합된 온난한 기후로 예부터 수산업이 발달했다. 또한 우주항공산업과 사천바다케이블카가 펼쳐진 미래의 희망 도시로의 성장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 분야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은 R&D 중심의 산업으로 석박사 중심의 고급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도의 지식 결합으로 이뤄지는 최첨단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높은 산업 분야로 꼽힌다.

따라서 사천교육은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여 항공우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드론 무인항공기에 초점을 맞춰 자율제어, 군집비행 등을 특화하고, 우주 분야는 초소형 위성, 로켓 등에 집중하여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사천교육의 지표와 위에서 살펴 본 사천교육의 지향점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천교육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사회 변화 요인에 대응하는 역량중심의 교육실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교육, 미래성을 담지한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모두를 혁신한 창의적인 교육으로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을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서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⁴⁾ 사천교육은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하여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해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미래형 교육체제를 구축하며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학교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육성이다.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형식이나 절차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실천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생활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방식, 생활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¹⁵⁾ 또한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과 기존 교육제도의 틀을 넘어 마을과 지역사회로 확장된 교육생태계를 활용하여 학생의 실제적인 삶의 공간에서 다양한 학습과 교육을 펼칠 수 있다

14) 경상남도교육청, 2022. *경남교육*(창원: 경상남도교육청, 2022), 9.

15) 경상남도교육청, 2022. *경남교육*(창원: 경상남도교육청, 2022), 8.

록 해야 한다.¹⁶⁾ 사천은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과정 편성·운영과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실 구축 및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가치를 잇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공감문화를 더욱 확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다.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학생들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건강을 지키는 보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천교육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몸으로 익히는 안전교육 강화, 학교시설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 학생 중심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 더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하여 노후 학교급식 기계기구 교체, 학생 개인의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를 통해 보편적 교육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더불어 행복한 교육 복지이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공교육의 중요한 책임이자 과제이다.¹⁷⁾ 사천교육은 계층 간 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소외되거나 좌절하는 학생이 없이 누구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균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지역 맞춤형 학습복지를 지원하고, 교육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저마다의 빛깔을 갖는 작은학교 지원 및 특기·적성을 살리는 방과후학교운영과 수요자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편안함을 드리는 교직원 복지 증진과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한 균형 잡힌 교육복지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 행정이다. 사천교육은 교육 주체의 불편사항과 민원해소를 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편의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와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학교업무 적정화를 통하여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학교현장지원,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회계 운영 및 학생교육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재정관리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 공감 문화 조성을 통하여 신뢰받고 감동주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16) 경상남도교육청, 2022. *경남교육*(창원: 경상남도교육청, 2022), 9.

17) 경상남도교육청, 2022. *경남교육*(창원: 경상남도교육청, 2022), 8.

2. 사천교육의 역점과제와 발전 방향

경남교육의 비전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이를 지향하기 위하여 경남교육의 역점과제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다. 이에 사천교육은 경남교육의 역점과제와 지역성을 조화시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학교문화 만들기, 배움중심수업으로 미래역량 키우기, 학교와 마을을 잇는 사천행복교육지구 운영하기’로 좀 더 구체화하여 실천 가능성을 더하였으며 그 역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학교문화 만들기

소통과 존중의 교직원 문화 조성을 위해 단위학교 다모임 및 학교문화혁신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주도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학생자치회 토론회 운영, 경남 학생회장단 구성 및 리더십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및 증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천거점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 각종 연수와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용함으로써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배움중심수업으로 미래역량 키우기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연수 운영,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지원,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배움중심수업의 정착을 위하여 수업나눔학교 및 수업나눔교사제 운영, 교원 맞춤형 연수 확대 운영, 빅데이터-AI플랫폼 ‘아이톡톡’ 활용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지원단 운영, 교사 수업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사의 수업혁신 지원과 수업나눔 일반화를 통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목표로 추진 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사천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천행복교육지구는 2018년 경상남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힘

써온 사업이다. 또한 올해 사천시와 사천교육지원청이 2022년 7월 협약기간 연장에 합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천행복교육지구는 2019년 행복교육지구 인프라 구축,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온라인 중심 마을교육 시도, 2021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마을학교 운영, 2022년 탄소중립선도, 기후위기 극복 등 4년간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발전시켜 왔다. 이를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요즘 학생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부터 시작해 연기, 춤, 노래, 재테크, 코딩, AI, 지구온난화 예방 등 최신 트렌드 교육, 그리고 인문고전, 미술, 음악, 놀이 등 고전까지 여러 분야의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생과 학교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갖춰질 수 있도록 사천교육지원청과 사천시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갖춰진다면 자연스럽게 학교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마을학교에 대한 참여율 또한 높아질 것이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마을교사의 확보이다.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마을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천시민들에게 사천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교육적 재능 기부를 유도해야 하며, 사천교육지원청과 사천시청은 예산을 보다 확대하여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능기부를 원하는 일반인을 선발, 재교육화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학교나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확보한 전문성을 갖춘 마을교사로 질 높은 마을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천행복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참여 확대이다. 운영 주체인 사천교육지원청과 사천시청의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 및 마을교사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파악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홍보를 통해 사천시민들도 자발적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주민 조직과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 단위 교육공동체의 성장 단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지원 내용을 맞춤형으로 설계, 안내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등의 교육공동체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천교육의 특색과제와 발전 방향

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이커교육

메이커교육은 항공우주산업 도시의 환경적 여건을 활용한 미래항공 우주산업의 꿈 키움과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상상한 것을 창작하고 공유하는 미래교육 문화 풍토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메이커교육은 초·중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메이커 도구의 활용 방법을 이해하는 ‘출발! 꼬마틴(teen)메이커’와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유레카! 꼬마틴(teen)메이커’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메이커 활동으로 ‘메이커 패밀리데이’, 메이커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메이커 강사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른 메이커 도구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메이커 교실(드론·로봇 교실)’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꿈채움 자율 메이커 동아리와 교사의 메이커 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메이커교육의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및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커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강사 선발 및 육성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메이커교육은 운영 특성상 여러 분야의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강사 인력풀을 좀 더 확장해나가는 동시에 함께 보조강사 활용, 강의 영역별 연수 지원 등 강사를 양성하는 부분까지 강사 수급을 위한 노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결국 강사의 전문성이다. 강사들에게 메이커교육과 관련한 여러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강사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하여 스스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메이커교육 강의 전문성 향상은 꾸준히 누적되어온 강사의 강의 경험이 중요한 바탕이 되므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이러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배우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메이커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수준과 만족도가 높은 기존 교육프로그램은 수정 보완을 통해 계속 운영하면서 관내 많은 학생이 이미 경험한 프로그램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꾸준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사천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지역사회 미래 핵심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력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나. 꿈을 향한 무한 도전! 사천학생뮤지컬단

사천학생뮤지컬단은 2013년 12월 3일에 사천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을 창단하였고, 2019년부터는 ‘사천학생뮤지컬단’으로 개칭하였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 학년을 확대하였다. 사천학생뮤지컬단은 2014년 8월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9년간 총 34회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2022학년도부터는 사천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사천학생뮤지컬단은 연초 단원 선발 오디션을 시작으로 입단식, 배역 오디션, 집중 연습, 시연회, 리허설 등을 거쳐 공연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연간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사천교육의 특색사업인 사천학생뮤지컬단의 과제와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점학교 운영

사천학생뮤지컬단 운영 거점학교는 2013~2014년 수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용산초등학교, 2016년에는 사남초등학교, 2017~2018년에는 문선초등학교, 2019년에는 동성초등학교, 2020~2021년과 2022~2023년에는 용산초등학교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거점학교는 창단부터 2019년까지는 1년간 운영(2018년 예외)되었는데, 1년 단위 거점학교 운영은 운영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의 특성상 기존의 운영 노하우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일정 부분 한계점이 있었다. 이 점을 보완하고 뮤지컬단 운영의 안정화,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2년 단위로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천학생뮤지컬단 운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거점학교 학교장, 교감, 담당장학사, 업무실무자, 연출 감독, 외부 위원(전문가, 뮤지컬연구회 교사 등)으로 구성된 ‘사천학생뮤지컬단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관내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실제 학생 지도와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사천뮤지컬교육연구회원들의 규모 확대와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등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 예산 운영의 안정성 확보

사천학생뮤지컬단은 2022년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및 사천교육지원청의 지원 예산

뿐만 아니라 사천시청, 고성그린과워, 남동발전, 한창우나가코 교육문화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해마다 예산액의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으며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예산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후원 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약(MOU) 등 중장기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균형 있는 단원 선발

사천학생뮤지컬단은 그동안 다양한 기준과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해왔다. 2013년에는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최소 1명 이상을 선발했으며, 2019년 이전까지는 이를 유지했다(2018년은 학교별 1명 선발 권장). 또한 2015년과 2018년은 기존 뮤지컬단원을 유지하고 결원만 선발하기도 하였다. 2019년부터는 중학생까지 선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학교별 최소 1명 이상 선발 방침은 삭제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뮤지컬단 지원 기회 확대, 단원 선발 공정성 확보 및 뮤지컬 공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사천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단원 선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 내 거점학교의 위치(삼천포지역, 사천읍지역)에 따라 학교별 지원 학생 수 변화가 많아지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통학 차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천학생뮤지컬단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공연 기회 확대

사천학생뮤지컬단은 2013년에 창단하여, 2014년 ‘천사들의 하모니’ 최초 공연 이후 2019년까지 사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공연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학생, 학부모, 일반인으로 관람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2018~2019년에는 지역 내 정기 공연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순회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초, 중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뮤지컬단의 뮤지컬 공연은 종합예술로서뿐만 아니라 높은 희소성으로 인해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해 실시하는 정기공연 외에도 그동안 축적해온 공연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축제, 타지역 순회공연 등 공연 기회를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